

일제강점기 朝鮮武道館 설립자 강낙원(姜樂遠)의 활동

임석원(대림대학교 강사) · 조문기*(일가재단 책임연구원)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근대기 한반도의 武道 정착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평가되는 조선무도관의 설립자 강낙원의 활약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로 연구를 전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일제강점기 강낙원은 한민족이 개인으로 설립한 최초의 사설 유도 및 검도관인 조선무도관을 창설하여 근대기 한반도의 유도, 검도 및 다른 무도 보급에 있어 중핵을 감당하였고, 특히 펜싱을 최초로 한반도에 도입하였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강낙원, 유도, 검도, 펜싱, 조선무도관

*ultrajo74@naver.com

I. 서 론

지금까지 올림픽(2020도쿄 올림픽 제외)에서 배출된 유도 메달리스트는 51개국 43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본이 종주국답게 금 39개, 은 19개, 동메달 26개로 총 84개 메달로 가장 많고 한국은 금 11개, 은과 동메달 각 16개씩으로 모두 43개 메달을 수확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금 9개, 은 13개, 동메달 11개였으며 여자는 금 3개, 은 3개, 동메달 5개다. 전체 메달수에서는 프랑스와 같지만 금메달에서 3개가 적어 메달 순위로는 3위에 올라 한국 유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짐작케 한다(정태화, 2021, 7, 27 : ⑧유도한일전).

현대의 한국 유도는 그 위상에 있어 종주국 일본에 육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는 경기 및 학문적 성과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고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복수의 문헌 등을 통해 알려져 왔다. 이에 과연 무엇이 그러한 성과를 나타내게 한 시원(始源)인가 알아보는 노력은 장차 한국 유도의 만세(萬世)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논자는 그와 같은 성과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을 한반도 유도 교육기관과 그곳을 설립한 인물들의 노력이 주요했다고 판단한다. 유도는 한반도에 도입되는 시기에 있어 韓人이 주축이 된 4개의 유력 도장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이학래(1990)는 그것을 1938년 5월 12일자 조선일보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유력한 지도단체인 朝鮮武道館, 中央基靑柔道部, 朝鮮講武館, 朝鮮研武館등 네단체에 대하여…중략…강도관 조선지부에 합류…중략…사범인 姜樂遠, 張權, 韓軫熙, 李景錫 제씨에게 사도장려를 위함은 물론이요 내선일체의 깃발아래서” 사설유도장의 대표격인 무도관, 강무관, YMCA유도부, 연무관은(이학래, 1990 : 97-98).



그림 1. 한진희, 장권, 이경석의 尊影

출처 : 조선일보, 1939. 2. 11. 2면

앞에 인용된 4개 도장의 지도자인 한진희, 장권 이경석은 각각 임석원, 조문기(2009)의 「이경석의 생애와 유도 사상에 관한 연구」, 조문기, 임석원(2012)의 「일제강점기 경과 한진희의 유도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 Moongi, cho(2016)의 「Toward “sport for all” ; Jang Gwon and Sport Promotion by the Korean YMCA in the Japanese Occupation Era」 등에 의해서 고증 되었다. 이에 본고는 이학래(1990)에 의해 언급된 인물들 중 남은 ‘강낙원’에 주목하여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강낙원에 대한 천착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낙원을 중심으로 하여 논문으로 진행된 연구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몇몇 문헌들에서 그의 이력에 대해 일부분씩 산재되어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낙원은 오늘날 한국 유도의 성과를 이룬 4개 도장 중 한 곳을 설립한 인물로서, 그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유도 시작의 근원을 알아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고에서 강낙원을 주목하게 된 배경은 강낙원을 제외한 3개 도장의 설립자들은 전술한 것처럼 일정부분 문헌적 연구가 이루어진바, 이에 강낙원도 연구의 연속성과 완성이란 측면에서 선행된

연구(이경석, 한진희, 장권)와 같은 정리가 요구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번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 유도 도입기의 공헌자 4인의 기초적 이력에 대한 문헌적 자료의 완성에 근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 중 하나인 ‘유도’의 한국도입과 발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축적에 일조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고의 범위는 그러한 강낙원의 기본적 身元 및 무예관련 활동을 찾아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며, 지면상 일제강점기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고에서 얻고자 하는 의의는 한반도 유도 도입기의 4개 유력도장의 지도자 중 앞서 진행된 이경석, 한진희, 장권에 더하여 강낙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 체육학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두고자 함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과 의의에 도달하기 위해 신문, 잡지, 논문, 단행본 등을 사용한 문헌 고찰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자료의 사용은 강낙원이 활동하던 당시 발행된 일간지 등을 1차 사료로서 주로 사용하고 강낙원이 일부 언급된 논문과 단행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강낙원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평가를 검토하며, 그때 사용된 참고문헌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역추적하여 논문과 단행본 저자의 평가에 대해 검증해 본다. 아울러 1차 사료 및 문헌을 찾기 힘든 자료에 관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보완함을 밝히며 본문에 들어간다.

Ⅲ. 강낙원의 이력

본론의 천착에 앞서 강낙원에 관련된 사계(斯界)의 권위자들의 언급을 펼쳐 본다.

* 각종 정보나 지적 자원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네이버 국어사전)

文化統治期の 私設道場 이 시기의 한국유도의 대표적인 사설도장을 朝鮮武道館과 講武館이다. 이 두 도장들은 학교와 관공서,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일본인들의 도장을 제외한 우리 사설 유도장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한국유도의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이학래, 1990 : 88).

국내에서 최초로 단증을 수여한 것은 1922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22년 6월 25일 조선무도관…중략…유도 1단이라는 자격을 준 것이다(김상철, 2000 : 81).

진술한 인용문 모두에서 공히 광복 이전 ‘朝鮮武道館’이라는 사설 유도장에 대해 그 역할에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된 조선무도관의 설립자가 바로 본고의 대상인 강낙원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그의 활동을 조선무도관 설립 전후로 해서 살핀다. 먼저 강낙원이 조선무도관을 설립하기 전까지의 이력인 그의 출생, 학력, 조선무도관 이외의 근무처는 다음과 같다.

단기 4282년[1949] 3월28일…중략…오현주(단기 4225년 2월 25일 생), 신분 양반,…중략…夫는 강낙원[姜樂遠]…중략…夫는 敬新中學을 졸업하고 서울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日本에 가서 검술을 배운 후 徽文高普…중략…강낙원이와 何時에 결혼하였는가. 본인이 24세 時 11월 15일에 결혼하였습니다. 강낙원이는 何處人인가. 江原道 春川 사람이올시다. 결혼 당시에 강낙원이는 몇 살이던가. 22세이옵니다. 무슨 관계로 결혼케 되었는가. 故 이상재[李商在](청년회관)씨의 소개로 결혼…중략…결혼한 翌年(내가 25세時) 2월중에 在日本 東京講道館에 공부하러간다(신형식, 1949 : 1-48).

앞의 글은 강낙원의 처 오현주가 조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진술된 내용을 보건데 강낙원은 춘천사람으로 경신학교*을 거쳐 서울고등공업학교**를 졸업 후 일본에서 검술***을 배워 휘문고보(현재의 휘문학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에 있는 사립 중학교이다.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H.G.언더우드(원두우) 목사의 창설로 학교를 설립하고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칭하고, 1905년 경신학교로 교명을 개명하였다(두산백과).

**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 경성고공)는 일제 강점기의 교육기관으로, 조선총

와 연희전문(현재의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월남 이상재*의 소개로 1915년 결혼 직후 일본 강도관**에 유학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강낙원의 무도 수련을 위한 渡日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와 혼인 직후 두 번 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강낙원의 출생을 보면 직전의 인용문에서는 강원도 춘천임을 밝히고 있지만 출생년도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다른 정황으로 유추해 보면, 문서를 작성할 당시 강낙원의 처의 나이는 58세이고 단기(檀紀) 4225년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만57세 서력으로는 1892년생이다. 혼인은 본인이 밝히길 24세 때이고 강낙원은 22세라고 하니 강낙원의 출생은 1894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강낙원의 尊影 청년기로 추정 / 강낙원이 근무했던 기청유도부 도장***

출처 : 조선일보, 1939. 2. 11. 2면 / 1935. 2. 19. 6면

이제 강낙원이 어디서 유도를 수련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독부에서 운영하는 관립 전문학교였다(위키백과).

*** “한국에서 검도의 시작은 구한말과 일본 식민지기에 일본에서 검도를 배운 사람들로 부터이고, 일본 검도를 따르고 있다. 일본 칸사이대학 출신, 오사카부 검도부에서 활약하다가 경기도 경찰국 도조교로 임명된 서정학 선생, 도쿄농업대학에서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경기고보 교사였던 이종구 선생, 1941년까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다카노 사사부로의 수도학원을 필한 조선무도관의 장인 강낙원 선생(나무위키 : 검도).”

* 일제강점기 YMCA 전국연합회회장, 신간회 창립회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민권운동가, 청년운동가(두산백과).

**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가 창설한 일본 유도(柔道)의 도장(道場). 1882년에 창설되었으며, 창설자 자신이 창시한 유도를 보급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고도칸이라 명명하였다. 전통적인 무술을 근대적인 경기·운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두산백과).

*** 도장 입구 상단 편액의 글씨는 ‘天空海闊’이란 글자로 뜻은 도량이 넓고, 그 기상이 웅대함을 이르는 사자성어이다.

같이 강낙원의 광복 전 핵심 업적은 조선무도관의 설립이다. 강낙원은 동관을 설립하기 이전, 이미 한민족 유도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황성기독교청년회(이하 기청)에서 유도 지도를 했었다. 그렇다면 조선무도관 설립 이전에 이미 상당한 유도 실력을 가지었을 것인데, 그는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을까? 이에 대해 한국YMCA 12대 회장을 지낸 전택부*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기었다.

지금 낙원동에 있는 건국대학 야문 대학 자리에 있던 오성학교 아래층에서 유도를 했는데 이것은 유근수란 사람이YMCA에서 나와 시작한 것이고 노인선씨가 그의 제자이고 강낙원씨는 노인선씨의 제자이다(편집부, 1971. 3. 18 : 5).

진술을 보면 강낙원에게 오성학교**의 校舍(지하실로 추정)에서 유도를 지도한 인물이 노인선이고 그는 유근수***에게 배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낙원은 노인선을 비롯한 유근수에게도 유도를 지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하여 강낙원이 처음 유도를 배운 장소의 정식명칭은 경성체육연습소이다.

강락원(姜樂遠)씨는...중략...십구(十九)세때 지금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

* 전택부(1915~2008)는 대한민국의 종교인이다. 함경남도 문천에서 태어났다. 1941년에 일본 신학교를 중퇴하였다. 1952년에는 월간 잡지 《새벽》, 1954년에는 《사상계》의 주간으로 일했으며, 1957년부터 20여 년간 서울 기독교 청년회에서 총무 등 여러 중요 직책을 맡았다(위키백과).

** 서북협성학교는 1908년 서북인들이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2번지에 세운 학교이다. 현재 재단법인, 광신학원의 모체이다. ...중략...1910년 10월 1일 서북협성학교는 오성학교(五星學校)로 교명을 고쳐 부르다가 1918년 4월에 총독부로부터 폐교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1921년 4월에 최시준(崔時俊)이 오성강습소(五星講習所)를 설치하고 1922년 3월에 최시준·오희원(吳熙源)·허헌(許憲) 등이 설립자가 되어, 1927년 7월 1일 다시 협성실업학교로 개편되었다(위키백과).

*** 유근수는 1902년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의 소위에 해당하는 참위로 임관한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다. 1907년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뒤 애국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대한학회의 회원으로 참여...중략...후에 독립운동가에서 친일파로 변절한 오현주의 남편 강낙원파도 가깝게 지내면서 그에게 유도와 검도를 가르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YMCA에 유도와 검도부를 운영하기도 했던 그는 경영을 포기하고 후에 일본 경찰 조직에 들어가 반민족 활동을 하였다(위키백과).

業學校)의 전신인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傳習所)를 졸업하고 중국(中國) 천진(天津)에 류학 하다가 일천구백륙년에 지금 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學校) 자리인 오성학교 지하실(地下室)에서 조선에 처음으로 가르키기 시작한 경성체육연습소(京城體育練習所)에서 유도를 배웠으며(편집부, 1930. 4. 13 : 7).

위의 언급에서처럼 강낙원이 유도를 처음 배운 장소가 1906년의 경성체육연습소인데, 그 시기가 1906년이고 그곳에서 유근수와 노인선에게 지도받았다면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아닌 인물이 처음 유도를 교육한 것은 1909년 기청유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아직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료가 더 필요하기에, 본고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이정도로 마치고 협성실업학교 지하실 무도교습소 명칭이 ‘경성체육연습소’ 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감을 밝힌다.

다음으로 강낙원이 조선무도관을 설립하기 전 대표 근무처인 기청유도부를 책임진 것은 몇 번째였나를 살펴본다. 기청유도부의 최초지도자는 아주 잠깐이지만 전술된 유근수인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은 나수영* 이후 김상익, 박재영**, 강낙원, 한진희*** 장권****순으로 책임자가 교체되며 이어진다.

* 나수영에 대해서 전택부는 1971년 중앙일보에 진술한바가 있다. 내용을 발췌·윤문해 보면 “나수영은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으로 양복기술을 배우러갔다가 천풍해세류를 수련하고 온 인물로 귀국 후 경성에서 양복점을 하고 있었는데 기청의 김규식 학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청유도부에 초빙을 하여, 김상익, 박재영, 김홍식 등의 제자를 양성하다가 만주로 떠난 인물로 유술 외에 활법(일종의 구급법)에도 능했다고” 전언하고 있다.

진술이 구체적이긴 하나 당시의 지면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출처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그 신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를 진행하며 나수영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경성에서 양복점을 한 사실과 만주 간도에 위치한 용정촌(중국 만주지방 길림성에 위치한 장소로 일제강점기 당시 한민족이 다수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에서 무도관의 책임을 맡은 사실을 적시한 史料을 찾게 되어 전택부의 1971년 일간지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지게 되었음을 밝힌다. 다음에 그 내용이다.

대한매일신보(1908. 7. 28 : 2) “京城各洋服店主가 組合되얏다홈은 前報에 掲載했앗기니와 日本卒業生 羅壽泳 李承根 金演奎氏等 貳拾八人이 發起호야 組合成立호얏다더라”, 時代日報(1924. 4. 15 : 1) “龍井村에 武道學館 設立 불원간에회관외지건축 【간도】 間島 龍井村에 거주하는유지들이 지난오일 조선식당에 모혀 武道學館설립발기회를열고여러가지 토의를 한 결과 회관설립금은 일반의 동정을 엇기도하고 부족금은 유지들이담당하기로 하엿스며그교수의책임을질이는 무도에조예가김혼라수영(羅壽泳)씨라한다”.

유도의 기본원리인 유능제강의 도를 터득한 나수영에게 1910년, 유근수는 혼쾌히 사범의 자리를 물려주고 의형제 관계를 맺었다고 전한다. 유근수는 그 길로 대구로 내려가 연무관(鍊武館)을 창설했다(김정행, 김상철, 김창용, 1997 : 131).

15년 전에 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督教青年會)內 유검도부(柔劍道部)를設 하야 羅壽泳氏와劉 根洙氏가 3, 4년간…중략…其後 金相翌氏가 師範의 前功을 痛歎히생각하야 其後를 계속 하얏으나 역시 自退하고 其後는 박재영(朴在英)氏가 5, 6년간…중략…此時 강낙원(姜樂遠)氏가…중략…此時에 本人이 日本 東京으로부터 귀국하야 大正10년에 청년회학관(青年會學館)에 취직 동시에 悲運의 유도부(柔道部)를 담임하야 다소 혁신교수(革新教授)로 진행하다가 작년 9월에辭任(韓幹熙:李敦化, 1924 : 50-51).

강낙원이 기청유도부에 부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황*은 1967년 ‘대한체육회’ 기관지인 『체육』의 3월호 16쪽 「YMCA와 韓國體育」이란 대담에서 “1919년에 박재영씨가 3.1운동에 연좌되어서 들어가니까 강낙원씨가 관계”했다고 진술한다. 즉 강낙원의 기청유도부 근무기간은 1919년부터 한진희가 부임하는 년도인 大正10년인 1921년까지인 것이다. 동년 강낙원은 그 자신이 라고도 할 수 있는 공간인 ‘朝鮮武道館’을 설립하게 된다.

** 박재영에 대해서 조문기, 임석원(2009)은 「일제강점기 연무관의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박재영이 나수영의 제자로 ‘제강류’ 유술을 수련한 인물로 기술하였다.

*** 경파(鯨波) 한진희(1895-1976)는 강무관의 설립자이며, 한진희는 그동안 알려진 사실처럼 유도 지도자로서의 활동 이외에도 다른 체육 종목의 지도에도 관여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수영에서 발군의 모습을 보인 인물(조문기, 임석원, 2012 : 46)이다.

**** 장권(1898-월복)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4대 유력 유도관 중 하나인 YMCA 유도반을 지도하며 수천명의 유도인을 양성한 인물로서, 여러 가지 무술에 능한 훌륭한 유도 사범이자 농구를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 인물이다.

* 창주(蒼舟) 이제황(1910-1981)은 유도발전을 위해 공헌을 하였으며, 유도학교를 지커(손환, 임석원, 2006 : 33)낸 인물이다. 더하여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 유학중에 항일단체에 관계하여 활동하는 등 항일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표 1. 조선무도관 설립 이전 강낙원의 이력

	출생	학력	무도수련기관
강낙원	1894년 강원도 춘천	경신학교 서울고등공업학교 중국유학(천진)	경성체육연습소 일본修道學院(검도)* 일본講道館(유도)
비고	1915년 이상재의 소개로 오현주와 혼인	1906년 경신학교에 재학하면 서 무도수련을 시작함	유근수, 노인선, 다카노 사사부로** 등에게 지도 받음

Ⅳ. 조선무도관의 설립과 운영



그림 3. 1921년 조선무도관 위치*** / 1923년 조선무도관 위치****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 아카이브번호 : 67566 / : 67566*****

武道館을 新設 강락원씨 발기로...중략...전문으로무도를 가라칠 목덕으로樂園洞五

* 1929년 일본 수도학원을 졸업한 강낙원이 연희전문학교 체육교수 재직하면서 검도를 지도하였고(박동철, 2007 : 32)

** 高野佐三郎(타카노 사사부로), 분큐 2년 6월 13일(1862-1950)은 일본의 검도가. 유파는 중서파 일도류 검술 칭호는 대일본무덕회검도범사...중략...경시청 격검신세가게,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 등을 역임한 쇼와 초기 검도계의 제일인자(日本, 위키피디아).

*** 최초의 조선무도관은 낙원동 282번지 오성학교 지하실에서 시작했다. 그림 3에서의 위치는 지도상단 천도교 건물 하단 중앙에 건축물로 표시된 지점으로 추정된다.

**** 그림3 정중앙에 苑洞196번지가 보인다. 밑에 휘문학교가 있고 서쪽으로는 위생실행 사무소의 거대한 부지와 이웃하고 있으며 동쪽 하단에는 창덕궁 돈화문이 표시되어 있다.

***** 『서울지도』(2006), 164쪽에 있는, 허영환이 기증한 1933년의 경성시가도이다.

星講習所안에武道館을설치하고□ 반학생을모집하야 교수할 터이라는데 장래에는 세로집을건축하야 큰 규모로확장할 예정이라더라(편집부, 1921. 10. 20 : 3).

朝鮮武道館開館 심오일오후에 재작심오일 우후칠시반에 시내원동 백구십륙번디에서 요새신축한朝鮮武道館의開館式을거행 하얏는데 원래 이조선무도관은 지금으로부터 삼년 전에 지금 協成學校 디하실을 빌어 경영(편집부, 1923. 10. 17 : 3).

인용문에서 보듯이 조선무도관은 1921설립되었으나 1923년에 신축하여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축 이전하기 전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일천구백륙년에...중략...유도를 배웠으며 일천구백십일년에는 유금도*를 교수 하얏다 그리하다가 일천구백십삼년에 안국동 공영여관 자리로 옮겨가서있다가 사년후에 다시 오성학교 지하실로돌아와이리저리 간판을 등에걸고 유금도지도에 노력을다 하얏다일천구백십구년에는 종로청년회 유도부 선생으로 힘쓰다가 일천구백이십□년에 경성체육련습소를 무도관으로 이름을 고쳐가지고 마터오다가 지금원동에 도장을 세우고 유지의 원조를 어더씨다가 전체경영을 유지...중략...관원은 유도, 검도, 권투...중략...연희전문학교사범을 겸임(편집부, 1930. 4. 13 : 7).

前述에서 강낙원은 1906년 유도를 배워 1911년부터 지도를 했고, 이후 1913년에 안국동에서 지도를 하다. 1917년 다시 경성체육련습소에서 지도 중 1919년 기청유도부에 초빙되고, 1921년 다시 낙원동으로 돌아와 ‘朝鮮武道館’으로 현판을 달고 시작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韓인이 사재를 들여 일제강점기 경성에 설립한 최초의 사설 유도·검도관**이다. 이후 1923년 조선무도관은 최초의 자리에서 원동*** 196번지로**** 이전(자택도 兼)*****하게 된다.

* 유금도는 유도와 검도를 뜻한다. “유금도(柔劍道)(편집부, 1935. 10. 16 : 2).”

** 1921년 11월9일 강낙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 사설도장인 조선무도관이 설립되어 일반인들에게 검도를 지도(박동철, 2007 : 31).

*** 원서동 동명은...중략...원동(苑洞) 지역이었던 지명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아 창덕궁 후원의 서쪽에...중략...유래...중략...개편된 북부 원동 · 관현과 계동 일부 지역이...중략...원동으로 칭하였다(편집부, 2009 : 원동편).

표 2. 강낙원이 무예를 지도한 대표적 장소

년도	1911	1913	1917	1919	1921	1923
장소	경성체육 연습소	공영여관 부지	경성체육 연습소	기청 유도부	조선무도관 설립	신축 이전
위치	낙원동 오성학교 지하실	안국동	낙원동 오성학교 지하실	종로 YMCA	구)경성체육 연습소	원동 196번지
비고	입문한 장소			5번째 지도자	유지*의 원조를 받아	연희전문 사범검직**



그림 4. 조선무도관 검도부원들과 강낙원*** 그리고 수련중인 學童들
출처 : 동아일보, 1934. 1. 1. 10면 / 1924. 2. 4 : 2면

三柔道家의 名譽 朝鮮武道館(조선무도관)에서 今日 봉단식 거행 시내 낙원동 협성 학교안에 있는 조선무도관에서는 今十一日 오전 열시에 무도관일동과 鐘路靑年會 柔道部(종로청년회유도부)원일동이런합하야...중략...박재영 한진희 강락원 삼씨에 대한 봉단식을거행할터인데 박재영 한진희 양씨는 유도삼단으로 강락원씨는유도와검도에 대하야 각 삼단으로 단위를 드리는 식을 행할 터(편집부. 1922. 6. 11 : 3).

신축 건물로 이전하기 전년에 조선무도관은 강낙원, 한진희, 박재영을 모시고 봉단식을 가진다. 이들은 기청유도부를 강낙원의 전과 후에 책임진 인물

**** 강낙원씨(연희전문강사) 원동백구십육번지...유래...자택(편집부, 1933. 1. 16 : 1).

***** 이곳의 위치는 옛 휘문학교 근처로 현재로 보면 서울 계동 현대사옥 뒤편이다.

* 강낙원, 박재영, 한진희, 유식렬 제씨의 발기로 조선의 건양를 배양할 조선유도계의 통일적 기관으로 조선무도관이란 도장의 창설(편집부, 1934. 1. 1 : 10).

** 延專에 柔道部新設...중략...조선무도관사범강낙원씨(편집부, 1928. 10. 26 : 2).

*** 사진 하단 중앙에 콧수염이 난 인물이 강낙원

들로서 이날 삼단으로 승단한다. 주목할 점은 이때 강낙원은 박재영, 한진희와 다르게 유도 외에 검도에서도 3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는 강낙원이 검도에도 매우 능했음을 알게 해준다. 조선무도관의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내 원동 一九六(일구육)번지 朝鮮武道館(조선무도관)에서는 지난 사월 일일부터 신입관원이 증가하는데 따라서 동관의 유도, 검도, 권투, 펜싱, 씨름 등 오부를 두고 사범 강낙원씨의 지도 아래 오늘에 이르는데 권투부를 비롯 하여 각부의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권투=김동준, 한익, 이세우, 김윤진 / 검도=이복원, 황일연, 김상은 / 씨름=김윤진 / 펜싱=강낙원 / 유도=지화충, 김재을, 김창순 / 특별부의 여자부를 설치하고 노년과 약한 여자를 위하여 가르킨다는데 현재 특별부에는 유순희, 박문양의 수인이 있고 여자부에는 삼인이 있다고 한다(편집부. 1933. 5. 2 : 2).

확장된 조선무도관은 초기 교육내용이던 유도와 검도*, 권투 외에 씨름 펜싱 등으로 교육내용을 확장하여 종합격투수련관의 진용을 갖추게 된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을 볼 때 주목할 일이라고 논자는 본다. 더욱이 그것에 관해 좀 더 살펴보면 각 종목의 지도자가 세분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조선무도관의 교육내용이 매우 충실했음을 보이는 방증이다. 다음은 조선무도관 권투부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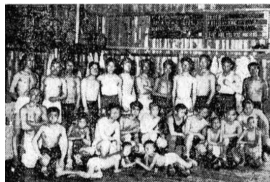


그림 5. 조선무도관 권투 수련생들

출처 : 조선일보, 1933. 7. 6. 2면

* 일본의 검도를 한국인이 소개하고 지도한 것으로는 검도의 보급을 가속시킨 1921년의 조선무도관의 설립부터이다(김영학, 허건식, 이인희, 1998 : 109).

더하여 특별부(여성 및 노약자)를 따로 운영한 사실도 매우 주목할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여성을 위한 체육이 활발하다고 보기 힘든 당시를 생각할 때 더욱 돋보이는 점일 것이다. 격투 교육기관에 노약자부를 따로 만든 점도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관원만 늘리기 보다는 각자의 체력에 맞게 교육하여 관원을 위한 수련의 장소를 지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수련비와 수련시간에 대해 보면 조선무도관은 수련비*를 입관비와 월사금을 분리해서 받았으며, 수련시간은 각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6. 조선무도관 유도 수련모습과 학동들의 시연

출처 : 동아일보, 1924. 2. 4. 2면 / 1927. 2. 12. 5면

조선에 처음일 펜싱術指導 무도관원대중모 朝鮮武道館…중략…검도, 二刀流, 펜싱(西洋劍道)…중략…조선무도관에서는…중략…그리고 全鮮에서 펜싱을 지도하는 것은 이것이 嚆矢이라고 한다.…중략…□ 午前部▲검도부와 二刀流부 自七時至九時▲펜싱부 六時半 ▲권투부 九時至十時까지▲柔道部, 씨름部 十時至十二時까지 □ 午後部▲劍道, 二刀流, 西洋劍道部 四時半으로 六時까지▲拳鬪部 六時至七時半▲柔道部, 씨름部 八時至十時까지(편집부, 1932. 10. 6 : 7).

앞의 인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 최초의 펜싱교육이 조선무도관에서 강낙원의 지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한민족과 펜싱이 조우한 년도로 알려진 1935년** 보다 3년 앞서 1932년에 펜싱이 한민족과 만

* 입문금은 이원이오 관비는 매월 일원(편집부, 1935. 4. 4 : 2)

** 1935년경 일본 유학생 김창환(金昌煥)·김용제(金用濟)·이홍직(李鴻植)·윤재형(尹在亨)·문

났음을 뜻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교육과 운영에 있어 내실을 다진 조선 무도관은 번창하여 유창호*가 1926년에 인천무도관을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일원과 멀리 북간도 용정***에 까지 지관(支管)을 두게 된다.

표 3. 조선무도관의 주요 운영

	교육내용	수련시간	수련비	지관
조선 무도관	설립초기 (유도, 검도, 권투) 1932년 (펜싱, 씨름)	[오전반] 6시30분~12시 [오후반] 16시30분~22시	입관비2원 월사금1원	인천, 수원 평택, 용정
비고	二刀流**** 교육을 실시	한반도 최초의 펜싱교육		용정은 만주 간도에 위치

창운(文昌雲)·김봉준(金鳳俊) 등이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던 체코인 자브른스키 사범으로부터 습득한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처음 펜싱과 접한 동기가 되었다. 이들이 귀국하여 펜싱을 국내에 보급하려 했으나 일본인의 이른바 태평양 전쟁 도발과 함께 외래 운동이라는 구실로 금지 당하고 말았다. 8·15 해방(1945)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우리 펜싱은 1946년 펜싱 기구의 구입난 속에서 고려 펜싱 클럽을 조직하여 국내 최초의 수련을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 펜싱 경기의 효시다. 다음해 유근석(柳根碩)·장태형(張泰溍)·최경달(崔敬達) 등의 진력으로 조선 펜싱 연맹(대한 펜싱 협회 전신)을 조직해서 펜싱의 보급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구의 입수난으로 사업의 부진을 면치 못하던 중 1949년에 김인실(金寅實)의 특지로 포일(foil) 50자루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비로소 우리 나라 최초로 YMCA 펜싱부가 문을 열고 회원을 맞아들어 30여 명의 선수를 양성, 이 해 10월 우리 나라 첫 펜싱 경기인 시범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이태신, 2000 : 펜싱편).

- * 1926년(대정16년) 조선무도관편집으로 동양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조선무도관 유도대의’는 국내에서 한글로 된 최초로 발간된 유도 서적이다.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유도 저서이기도 하다. 주 집필자는 유창호이다.…중략…유창호 사범은 강낙원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다(<https://martial-arts.tistory.com>).
- ** 유창호가 1926년경에는 인천무도관을 창립하고 이것을 비롯하여 각 지방으로는 간도와 평택, 수원등지에 관원으로 하여금 도장을 창설(편집부, 1934. 3. 7 : 5).
- *** 조선무도관…중략…동관의 지체로는北間島 龍井(편집부, 1931. 4. 18 : 7).
- **** 이도류(にとりゅう)는 일본 검술에서 쓰이는 말로, 양손에 칼을 한 자루씩 쥐로 싸우는 검법을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V. 격투가로서 강낙원의 일화와 체육단체 조직화 先導



그림 7. 강낙원이 이종격투 시합을 한 경성공회당*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 아카이브번호 : 78557, 유물번호 : 서27657

“국제경기대회…중략…권투가들이…중략…자웅을 대결…중략…청년유도가로 또한 이름이 높흔 강락원씨가 김씨를 대신하여 설요글하얏다(편집부, 1921. 6. 24 : 3).” 조선무도관을 설립한 해에 강낙원은 이색적 시합을 한다. 바로 권투를 익힌 서양청년들과의 이종격투이다. 1928년 ‘별건곤’은 이것을 회고 형식으로 자세히 묘사했는데, 내용이 많아 이를 발췌·각색해서 적시해보겠다.

“권투를 익힌 유럽 각국의 청년들이 세계유람을 하며 현지인들과 무술시합을 하었는데 구주, 미주 등, 가는 곳마다 常勝하여 일본에서도 상대를 찾지 못하고 현해탄 건너 조선은 그냥 유람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각계의 요청에 의해 조선에서도 상대를 찾으니 처음에 유도도 이름이 높은 김상익(기청유도부 세 번째 사범)이 대적하였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그때 휘문학교에 근무하던 강낙원은 친지 김상익의 패배 소식을 듣고 격분하였으나 근무 중인 관계로 종일 분을 삭이다가. 근무를 마치고 시합장인 경성공회당으로 가서 그들을 찾으니 그들은 벌써 몇몇 도전자들을 패배시키던 참이었다. 당시 경성공회당에는 서양인, 일본인, 조선인 등 만장한 관중이 들어차 있었는데 서양인들은 그들과 더불어 의기양양한 모습, 동양인들은 민족에

* 소공동 조선포텔 건너편에 자리한 경성공회당(京城公會堂)의 외관이다. 1920년 7월 10일 낙성된 이 건물은 원래 경성상업회의소(京城商業會議所)의 용도로 건립되었으나 이에 겸하여 공연장 형태의 경성공회당으로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서울역사아카이브).

구분 없이 분한 모습이었다. 유럽청년들은 만장한 객석을 향해 호기롭게 누가 또 대적하겠는가를 외치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자, 이에 강낙원이 분연히 일어나 그들과 대적하니, 3합 시합 중에 첫판은 지고 뒤이은 두 판은 유도기술인 메치기, 굳히기를 이용 하여 유럽청년들을 완전제압하고 최종 승리하게 되었다. 동포의 통쾌한 승리를 본 조선인은 모두 일어나 환호작약했음은 물론이고, 유도의 승리에 일본인들도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었다(孫發, 1928 : 102-105).”



그림 8. 강낙원이 심판을 본 이종격투 시합, 장소는 천도교기념관
출처 : 동아일보, 1928. 11. 30. 2면

異種간 격투는 예상했던 경로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중요할 것인데, 강낙원은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선무도관의 초기 지도종목으로 권투가 포함된 점을 볼 때 강낙원은 4대 사설도장 관주 중 한명인 이경석*처럼 권투에도 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은 “평양유도청년회가 도장 건립기금을 모으기 위해 시내천도교기념관에서…중략…러시아 권투선수를 초청하여 유도선수들과 대결을 펼친 경기이다. 이 시합에서 강낙원은 심판으로 활약(편집국, 1928. 11. 30 : 2면)” 했다.

강낙원의 권투에 대한 이런 이해는 조선아마츄어권투연맹(1934)**에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권투 이외에도 강낙원 조선의 민족전

* 이경석이 유도뿐만 아니라 검도와 권투를 수련했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이경석에게 권투를 사사한 와타나베 시지로는 일본 복싱의 창시자로 일제하 한반도에서 권투 명인으로 회자되던 서정권(徐廷權)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임석원, 조문기, 2009 : 128).

** 전조선아마츄어권투연맹창립…중략…회장 유억겸 이사 성의경, 강낙원…중략…황을수(편집부, 1934. 1. 23. : 2).

통에도 관심이 많아 대표적 명절놀이 중 하나인 민속씨름에도 관심을 기울여 씨름협회* 설립에도 힘을 보탠바 있다.

명절놀이 부활 조직화 강력화 강낙원씨 담 우리가 대중보건문제를 앞에 걸고한말로 대중의 체위향상 운운하지만 이 문제야 말로 일조일석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만치...중략...조선고유의 운동경기의 진흥보편화는 절실히 요구되는 바라고 생각한다...중략...자랑 할성질의 문화적 유산까지 수성할 줄 모르게 된다면 이것은 실로 개탄(강낙원, 1939. 1. 1 : 11).

표 4. 일제강점기 강낙원의 주요 이력

	주요근무처	주요업적
광복전	기청유도부(1919) 조선무도관(1921) 연희전문유도부(1928) 중앙고보**(1931)	조선무도관 설립자(1921) 조선씨름협회 설립발기인(1927) 한반도 최초로 펜싱 도입(1932) 조선아마투어권투연맹 설립발기인(1934)

VI. 결론

본고에서 강낙원의 일제강점기 활동을 살펴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강낙원은 1894년 춘천출생으로 유근수, 노인선, 타카노 사사부로(高野佐三郎)등 에게 유도과 검도(각주 4. 참조)를 사사받은 후 종합무예수련시설인 ‘朝鮮武道館’을 1921년 京城(현재 서울 낙원동 후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 뒤편)에 설립하였다.

둘째, 강낙원은 조선무도관 이끌면서 휘문고보, 중앙고보, 연희전문 등 다수의 학교 유도, 검도부의 지도자를 겸직하여 학교 무예교육에도 일조하였다.

* 씨름협회 탄생...중략...발기인씨름은...중략...장권...중략...강낙원(편집국, 1927. 11. 22. : 5).

** 중앙고보교 도장낙성...중략...사범에는...중략...강낙원씨(편집부, 1931. 12. 23 : 7).

셋째, 강낙원은 1932년에 펜싱을 한반도 최초로 조선무도관에 도입하여 직접 지도를 맡았다.

넷째, 강낙원은 무예의 지도와 아울러 異種간 격투에서 있어서도 매우 출중한 면모를 보였다.

다섯째, 강낙원은 조선씨름협회, 조선아마츄어권투연맹, 등 복수의 체육협회의 설립발기인으로 참가했다.

문약한 망국 조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선 장사 100명을 양성하라는 월남 이상재(1850~1927)선생의 뜻을 받들기 위해 시작된 한국유도는, 일제강점기에 경성의 基靑柔道部를 시작으로 朝鮮武道館, 朝鮮講武館, 朝鮮練武館 등 4개 도장이 노력하여, 오늘날 세계의 한국유도가 되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다하였고, 본고에서 살펴본 조선무도관 館主 강낙원(1894-남북*)도 그와 같은 노력의 일익을 담당한 인물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끝으로 강낙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강낙원이 ‘문제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강낙원은 무예교육과 발전에 큰 ‘功’이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민족적 측면에서 그는 본문의 각주 10.에서 밝힌바와 같이 ‘過’ 또한 분명히 있는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들 중에선 강낙원과 같이 양면적 이력을 남긴 이들이 적지 않으며 이 또한 역사의 한 모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의 모습은 사회의 발전이란 결코 위인(偉人)에 의해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고 功過를 함께 가진 이들로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 그들을 나를 끌고 정치보위부(국립도서관 옆 대한산업 붉은 벽돌 건물)…중략…초대 심계원장(현 감사원장)을 지낸 명계세(明濟世)씨를 비롯해 강낙원(姜樂遠, 연세대 교수)…중략…감금된 지 불과 3일 만에 납치행 열차…중략…화물차 속에 개폐지처럼 실렸다.…중략…우리는 평양…중략…정치보위부에 도착했다(오동룡, 2015 : 진미경 대담편).

** 하지만 광복이후 건국과정에서는 자유민주국가(현재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공산독재국가(현재의 북한)를 세우려는 좌익에 맞선 타공전선에서 우익청년들을 이끈 지도자로 뚜렷한 공로를 남기었다. 본고에서는 지면상 연구의 한계를 일제강점기로 했기에 이것에 관련한 추가적 내용은 금후의 과제로 남김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정행, 김상철, 김창룡(1997). **무도론**. 서울 : 대한미디어.
- 김상철(2000). **유도론**. 서울 : 교학연구사.
- 이학래(1990). **한국유도 발달사**. 서울 : 보경문화사.
- 이태신(2000). **체육학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 遺物관리과(2006). **서울지도**. 서울 : 서울역사박물관
- 오동룡(2015). **월간조선 6월호**. 서울 : 조선일보사.
- 韓軫熙·李敦化(1924). **개벽 49호**. 경성 : 개벽사
- 편집부(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孫發(1928). **별건곤 제12-13호**. 경성 : 개벽사
- 신형식(1949). **피의자 신문조서**. 서울 : 반민특위
- 김명학, 허건식, 이인희(1998). 일제 강점기의 검도에 대한 의미. **무도연구소지**, 9(1), 107-114.
- 손환, 임석원(2006). 이제황의 생애와 유도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5(1), 25-33.
- 박동철(2007). 검도의 국내 발전과정과 현황. **대한검도학회지**, 23(1), 28-39.
- 조문기, 임석원(2009). 일제강점기 연무관의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81-92.
- 조문기, 임석원(2012). 일제강점기 경과 한진희의 유도활동과 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39-48
- 임석원, 조문기(2009). 이경석의 생애와 유도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125-136.
- Moongi, cho(2016). Toward “Sport for all” ; Jang Gwon and Spors Promtion by the Korean YMCA in the Japanese Occupation Era. **Sport History**, 48, 91-105.

- 편집부(1908). 京城各洋服店主가 組合되얏다흠은. 대한매일신보. A2면.
- 편집부(1924). 龍井村에 武道學館 設立. 시대일보. A1면.
- 편집부(1921). 청년유도가로 또한 이름이 높흔 강락원씨. 동아일보. A3면.
- 편집부(1921). 武道館을 新設 강락원씨 발기로. 동아일보. A3면.
- 편집부(1922). 三柔道家의 名譽 朝鮮武道館. 동아일보. A3면.
- 편집부(1923). 朝鮮武道館開館 십오일오후에. 동아일보. A3면.
- 편집부(1924). 修練중인 學童들. 동아일보. A2면.
- 편집부(1927). 朝鮮武道館 유도 수련모습과 學童들의 시연. 동아일보. A5면.
- 편집부(1928). 延專에 柔道部新設. 동아일보. A2면.
- 편집부(1928). 拳鬪대柔道전. 동아일보. A2면.
- 편집부(1930). 體育사업功勞者 약력소개. 동아일보. A7면.
- 편집부(1931). 十週年을마른 조선무도관. 동아일보. A7면.
- 편집부(1931). 中央高普교 도장낙성. 동아일보. A7면.
- 편집부(1932). 朝鮮에 처음일 펜싱술지도. 동아일보. A7면.
- 편집부(1933). 武道館擴充 五部部署決定. 동아일보. A2면.
- 편집부(1934). 創立된지廿五年 武道界로는 先進. 동아일보. A10면.
- 편집부(1934). 朝鮮武道館 將來가 더욱期待. 동아일보. A5면.
- 편집부(1935). 朝鮮武道館 관원모집. 동아일보. A2면.
- 편집부(1935). 體育會創立十六週. 동아일보. A2면.
- 편집부(1939). 名節놀이復活. 동아일보. A3면.
- 편집부(1927). 萬人渴望중에 씨름協會誕生. 조선일보. A5면.
- 편집부(1933). 朝鮮武道館 拳鬪부 革新. 조선일보. A2면.
- 편집부(1934). 全朝鮮아마티어拳鬪聯盟 創立. 조선일보. A2면.
- 이경석(1935). 柔道の 起源과 教育的 價値. 조선일보. A6면.
- 편집부(1939). 네師範五段에. 조선일보. A2면.
- 편집부(1933). 강낙원씨(연희전문강사). 중앙일보. A1면.
- 전택부(1971). 지금 낙원동에 있는 건국대학. 중앙일보. A5면.
- 정태화(2021). 한일 스포츠 라이벌 대결과 극일. 마니아타임즈. ⑧유도한일전
<http://db.history.go.kr>

<http://www.doopedia.co.kr>

<https://ko.wikipedia.org>

<https://ja.wikipedia.org>

<https://terms.naver.com>

<https://martial-arts.tistory.com>

<https://ko.dict.naver.com>

<https://museum.seoul.go.k>

ABSTRACT

Activities of Kang Rak-won, the Founder of the Joseon Budok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uk-Won, Yim(Daelim Univ.) · Moon-Gi, Cho(Ilga Foundation.)

This study observes the activities of Kang Rak-won, who is the founder of the Joseon-Budokan, which is evaluated to have enormously contributed to the settlement of martial arts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modern times. To achieve this purpose, a study was developed using literary examination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duced. Kang Rak-won founded the Joseon Budokan, which was the first private judo and kendo center established by an individual Korean pers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 played a core role in spreading judo, kendo, and other martial art forms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modern times and in particular, it introduced fencing into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first time.

keyword: Japanese Colonial Era, Kang Rak-won, Judo, Gumdo, Fencing, Joseon-Budokan

논문투고일 : 2021.06.30.

심사일 : 2021.07.20.

심사완료일 : 2021.08.10.